

학부 번역 수업에서 학습자의 정보 리터러시 능력 고찰

김 대 영
(고려대)

1. 서론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다양한 정보 미디어기기에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 평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 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가 필수적인 소양으로 부각되고 있다. 즉, 정보 리터러시는 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인 것이다.

정보 통신 기술(ICT)의 발전에 따라 이 개념은 정보 능력(Information skills)로 간주되며, 관련 용어로는 “컴퓨터 리터러시(Computer Literacy), 멀티미디어 리터러시(Multimedia Literacy), 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 정보통신리터러시(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Literacy),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네트워크 리터러시(Network Literacy)”(김혜숙, 진성희 2006, 김선경, 권정만(2008: 816 재인용)) 등을 언급해 볼 수 있다.

정보 리터러시는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컴퓨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며 여기서 정보(Information)는 문자, 이미지, 음성, 동영상, 하이퍼미디어, 멀

미디어 정보 등을 포함 한다(이수상 2007: 89). 1974년 미국 정보 산업 협회 (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의 회장 이었던 주르코브스키(Zurokowski)가 처음으로 사용한 이러한 용어의 개념은 처음에는 정보 능력으로 소개되었으나 1989년 미국 도서관협회(ALA)의 정보 리터러시에 관한 대통령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발간 이후 정보를 탐색하고, 평가하고, 활용하는 능력, 컴퓨터 사용 능력, 정보가 필요한 시기를 인식하는 능력 등 전반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다(서진완 2001: 311).

핀토 몰리나(Pinto Molina)와 살바도르(Salvador)(2008a)는 이러한 정보 리터러시 개념을 번역에 적용하여 번역 능력의 구성 요소 중 번역 과정에 있어 정보 자료 습득과 도구 활용 지식 등의 자료 조사 능력인 ‘도구적 능력’(PACTE 2003)을 ‘번역가에게 필요한 정보 리터러시 능력 (INFOLITRANS(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translators))’으로 간주하여 번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행위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실제로 핀토 몰리나와 살바도르(2008b)는 번역을 가르치는 스페인의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정보 리터러시 교육의 실태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교수자의 65%가 정보 리터러시 능력이 번역 교육의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현행 교과과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보 리터러시를 웹 서치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 엔리케 라이도(Enriquez Raído, 2011)는 대학과 전문 번역 기관의 교육과정에 있어 웹 서치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부재한 현 상황을 비판 하였다.

여러 학자들(Delisle 2005, Gile 2005, Kiraly 1995, Martínez Melis 2001, Perrin 1996)은 학부 번역 수업은 언어 능력 숙달 중심인데다가 학생들은 주로 이중 언어 사전만을 참조하기 때문에 전문 번역 수업에서는 향상시킬 수 있는 자료 조사 능력 즉 정보 리터러시 능력을 학부 번역 수업에서는 향상시키기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정보 리터러시 능력에 관한 학부 차원에서의 번역 교육 관련 연구가 부재한 현 상황도 이해가 가는 바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과 가장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부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조벽 2015: 10). 이러한 현 상황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의 학부 번역 수업의 학습자들도 정보 리터러시 능력을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

능성에 기반 하여 학부 번역 수업에서 에센베르그(Eisenberg)와 베르코비츠(Berkowitz)(1990)가 제시한 ‘Big 6 정보 리터러시 모델’을 활용하여 이를 학생들의 번역 과제 방식으로 채택하고 적용한 후 학부 번역 학습자의 정보 리터러시 능력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교육의 가능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Big 6 정보 리터러시 모델’과 문제 해결 과정 기반 번역 교수법

정보 통신부(1999)는 정보 리터러시의 각 단계에 있어 1)문제 인식 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인식 3)정보 소재 파악 4)정보로의 접근 5)정보 획득 6)정보 평가 및 사용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선경, 2008: 816 재인용). 에센베르그와 베르코비츠(1990)는 이러한 정보 리터러시 단계를 보다 더 구체화하여 정보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Big 6 정보 리터러시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이 모델은 정보 탐색을 통한 문제 해결과정을 지원해주는 단계별 가이드 및 세부 전략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 문제해결을 위해 적용 가능하므로 대상 부류에 상관없이 다양한 분야에 있어 그 활용 효과가 검증되어 왔다(강명희, 김래연 2000: 8). 이 모델에 따르면 1 단계는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2 단계는 정보탐색 단계로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즉, 이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3 단계는 정보의 위치 확인과 접근 단계로 자료의 위치를 확인하고 자료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이며, 4 단계는 정보 활용 단계로 자료의 가치 여부를 판단하여 실제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다. 5 단계는 종합 단계로 정보를 문제 해결을 위해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 단계에서 수집된 정보는 하나의 지식(Knowledge)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6 단계인 평가 단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수집된 정보로 재구성된 지식에 대한 평가 단계로 모든 과정 및 결과물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이다(서진완 2001: 314).

6 단계	세부 항목
과제/문제 확인	과제/문제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
정보 탐색	활용 가능한 자료 탐색 및 확인
정보 찾기	자료에 대한 접근 및 자료 안에서의 과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탐색
정보 활용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 추출
통합	추출한 다양한 정보를 재 조직화. 문제 해결/과제물 작성
평가	최종 과제물 평가,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평가

〈표 1〉 과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Big 6 정보 리터러시 모델’(Eisenberg, B. & Berkowitz, E. (1990)(강명희, 김래연 (2000:10) 재인용)

앞서 언급했듯이 번역의 정보 리터러시 능력은 번역 과정에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행위 능력이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Big 6 정보 리터러시’ 단계는 번역의 문제해결 과정과도 같다. 특히 번역 교육에 있어 아래 표의 여러 학자들이 제안하는 번역 과정 중심 문제 해결 교수법은 형태만 다를 뿐) 학습자로 하여금 번역을 하면서 문제시되는 부분들에 관해 어떠한 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해결 하였는지를 설명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수행 방식은 동일하다. 그리고 이러한 교수법은 마지막 6 단계인 평가 단계를 제외한 과제/문제 확인, 정보 탐색, 정보 찾기, 활용, 통합의 ‘Big 6 정보 리터러시’ 단계와 흡사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과정 중심 교수법과는 달리 ‘Big 6 정보 리터러시’ 단계에서의 문제 해결 과정 및 해결책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 단계를 포함하여 학생들에게 번역 과제에 있어 ‘Big 6 정보 리터러시 모델’ 기반 번역 과정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문제 해결 과정 기반 번역 교수법
번역의 문제와 의사 결정 보고서 (IPDR, Integrated Problem and Decision Reporting), 문제 보고서 (Problem reports, Gile, 1995)
서면 계획서(Written protocol, Scott-Tennent, Gonzales Davies and Rodriguez Trorras 2000, 2001) 번역다이어리(Translation diaries, Fox, 2000)
다양한 유형의 설문지(Different types of questionnaire, Orozco Tutorian & Hurtado Albir 2002, Kelly, 2005, Lee-Jahnke, 2001)
답안지(Answer sheets, Varantola 1998), 녹음 답안지(Recording sheets, Arkins & Varantola 1998)

〈표 2〉 번역 문제 해결 과정 교수법

1) 각기 제안하는 교육 도구의 형태가 다르다

2.2. 번역 능력 요소로서의 정보 리터러시 능력의 중요성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교수자들의 연구팀인 팩트(PACTE, 2003)는 번역 교육 분야에 중점을 두어 이전에 연구된 번역 능력의 구성 요소들을 종합하고 분석하였다. 그들은 번역 능력 요소를 두 언어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능력, 심리적 능력, 언어 외적 능력, 전문가적, 도구적 능력 그리고 전환 능력으로 구분하였다(PACTE, 2003).

팩트 그룹이 언급한 ‘도구적 능력(instrumental competence)’은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및 정보 자료의 활용과 관련된 절차적 지식이다(PACTE, 2009: 209). 이는 정보 리터러시 능력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팩트 그룹 외에도 여러 연구들을 통해 ‘자료 능력(documentary competence)’, ‘리서치 능력(research competence)’으로 불려왔다. 켈리(Kelly 2005: 32-33)와 곱페르시(Göpfersch 2009: 21) 또한 팩트(PACTE) 그룹과 마찬가지로 정보 리터러시 능력을 ‘도구적 능력’으로 정의하고 정보 검색, 용어 자료 조사, IT도구 사용 능력(Kelly, 2005: 33) 및 번역에 특수한 정보 도구 사용 능력(Göpfersch, 2009: 21)으로 간주하였다. 그들 모두 주제 지식,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도구적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도구적 능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번역 교육에 있어서도 유럽 석사 번역 과정(EMT, European Master's in Translation)의 전문가 그룹은 전문 번역 교육에서의 정보 탐색(Translation - mining)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그들에 따르면 정보 탐색 능력은 적절한 정보 자료를 확인하는 능력으로 용어나 자료 검색 전략 및 주어진 작업을 위해 적절한 정보 자료를 추출하며 번역 도구나 검색 엔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검색한 정보 자료를 보관하는 능력이다. 번역 서비스를 위한 유럽 표준/기준(European standard for translation services)인 ‘EN15038’에서도 번역 서비스 품질 제공에 있어 번역가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하면서 정보 능력, 정보 획득 및 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EN15038’에 따르면, 정보 리서치 능력은 출발 텍스트를 이해하여 목표 텍스트를 생산하는데 있어 필요한 언어 지식 그리고 전문 지식을 효율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능력이자 검색 도구 사용 경험과 필요한 정보 자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적절한 전략을 발전시키는 능력이다 (Enriquez Raido, 2014: 44-45).

사실 언어적 지식이든 언어 외적 지식이든 간에 번역가가 자신의 번역 작업을 위해 적절한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정보 자료를 찾고 평가하여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Gile 2005: 136, Vienne 1998: 189).

그러므로 도구적 능력, 즉 정보 리터러시 능력은 모든 번역 능력 요소들에 앞서 가장 근간이 되는 핵심 능력이 될 수 있다. 특히 4차 혁명의 도래에 발맞추어나가려면 번역 과정에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 리터러시 능력은 더욱이 중요한 핵심 능력일 수밖에 없다.

번역에서의 정보 리터러시 능력에 관한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몇몇 연구자들은(Massey and Ehrensberger-Dow 2010, Désiltes, Barrière and Quirion 2007, Désiltes 2007, 2010) 학생과 전문 번역가의 번역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행위를 비교하였고, 핀토 몰리나와 살바도르(2007, 2008a)는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 번역가의 번역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리터러시 행위를 분석하였다. 화이트(White), 매트슨(Matteson) 과 아벨(Abels)(2008)역시 정보 과학 분야에서 전문 번역가의 정보 행위를 연구하였다.

많은 학자들은 번역 과정에서의 이중 언어 사전 활용의 단점도 강조 하고 있다. 로베르츠(Roberts)와 페르니에(Pergnier)(1987: 395) 에 따르면, 번역은 단순히 언어적인 차원에서의 등가가 아니라 담화적인 차원에서의 메시지가 지닌 의미를 드러내는 작업이므로 단어 수준의 등가를 드러내는 이중 언어 사전 활용을 지양해야 한다. 또한 야스크라이닌(Jääskeläinen)(1999)과 쿤즈리(Künzli)(2001)는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가장 오역이 많은 번역은 이중 언어 사전을 가장 많이 활용한 경우였음을 확인했다. 질(Gile 2005: 157) 또한 이중 언어 사전은 모든 용어의 의미가 담겨있지 않으므로 충분치 않은 참고자료라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서구의 여러 학자들은 학부 번역 수업의 학생들은 주로 이중 언어 사전만을 참조하므로 도구적 능력, 즉 정보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한국의 상황도 이와 같은가? 본고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하여 한국의 학부 번역 학습자의 정보 리터러시 능력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르가르드(Regarde 2009: 58-71)의 전문 번역가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 자료 검색 방법의 분류)를 그 기반으로 하여 일반 외국어 사전(해당 외국어와 모국어, 예를 들어 불한사전), 이중 언어사전 (서로 다른 외국어, 예를 들

어 불명사전), 해당 단어사전(동일 외국어 사전, 예를 들어 불불사전), 한국어 관련 사전, 백과사전, 전문 용어 사전, 인터넷 검색을 통한 관련 사이트 참조, 관련 서적 및 논문, 관련 기사(병렬 텍스트, comparable text)로 정보 리터러시의 범위를 범주화하여 학부 번역 수업에서의 학습자의 정보 리터러시 현황을 분석하고 정보 리터러시 능력 향상 및 관련 교육의 가능성에 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3. 연구 절차 및 방법

3.1. 연구 절차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부과정의 불한 번역 수업에서 학습자에게 ‘Big 6 정보 리터러시 모델’ 기반 번역 과정 보고서 과제를 수행하게 한 후, 학습자의 과제 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해, 학부 학습자의 정보 리터러시 능력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6년 2학기에 서울 소재 대학 한 곳의 불어불문학과와 불한 번역 수업의 수강생 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업 초기 설문조사를 통해 프랑스어 수준(B1 수준, 프랑스어 능력 시험 기준)을 확인하였다. 이후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평이한 주제(사회문화 관련 텍스트)를 다루는 텍스트를 시작으로, 비평문이나 각 분야별(산업 경제, 정치 법률 등의) 전문적 시사 텍스트 그리고 수필과 같은 출판서적 순으로 난이도를 점진적으로 높여 나갔다. 과제는 한 학기동안의 적정 과제 횟수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에 따라 부여하였는데³⁾ A4용지 한 장에서 한 장 반 사이의 분량으로 학생들은 중간고사 이전, 이후로 각각 2회씩 총 4회⁴⁾에 걸쳐 과제를 수행 하였다.

2) 르가르드(Regarde 2009: 58-71)가 언급한 정보 자료 검색 방법 중 고객으로부터 제공 받은 전문 용어, 번역가/전문가의 도움 등은 학습자의 학부 학습자의 정보 검색 방법과는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제외하였다.

3) 총 학생 35명중 22명이 4회의 과제 횟수가 적합하다고 응답하였기에 이러한 학생 응답에 따라 학 학기에 총 4회의 과제를 부여하였다.

4) 과제 텍스트 주제 및 유형은 다음과 같다.

과제 1) 사회문화 텍스트 - ‘Argent(돈)’: Roesch, R and Rolle-Harold, R.(2016), ‘Argent’,

번역과제 방식은 ‘Big 6 정보 리터러시 모델’ 단계에 기반한 번역 과정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Big 6 정보 리터러시 모델’의 과제 확인, 정보 탐색, 정보 찾기, 정보 활용, 통합 등의 5 단계에 기반 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번역을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을 표시하고 어떠한 자료를 통해 이를 해결했는지를 설명하도록 지시하였고 마지막 6단계인 최종 과제물 및 해결 과정의 평가 단계에 있어 학습자가 제시한 해결 과정 및 최종 해결책이 스스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Y(Yes)’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N(No)’로 표시하고 마지막에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활용한 정보 자료를 나열하도록 제시했다.

원문 예시	Pas de stress supplémentaire Les résultats de cette expérience viennent corroborer ceux d'une enquête antérieure, portant sur «l'amnésie numérique au travail» qui démontre que les appareils numériques peuvent avoir un effet néfaste sur le niveau de concentration.
번역문 예시	추가적인 스트레스는 나타나지 않아 이 연구의 결과는 앞서 선행되었던, 디지털 기기들이 근무자들의 집중하는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직장에서의 디지털 치매 증후군’ 연구에 확증을 주게 되었다
‘Big 6 정보 리터러시 모델’ 기반 번역 과정 보고서 (Y/N) 예시	위의 문장에서 ‘l’amnésie numérique(=digital amnesia)’의 단어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에 대한 ‘kaspersky lab’의 연구를 참고한 결과 그곳에서는 ‘digital amnesia’를 “DIGITAL AMNESIA : THE EXPERIENCE OF FORGETTING INFORMATION THAT YOU TRUST A DIGITAL DEVICE TO STORE AND REMEMBER FOR YOU.”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디지털 기기들을 믿고 정보를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La France au quotidien,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Grenoble, p. 68-69.
 과제 2) 사회문화 텍스트 - ‘Le système de la santé en France(프랑스의 의료 시스템)’ in LCFM: <http://www.lcf-magazine.com/le-systeme-de-sante-en-france/>
 과제 3) 수필 텍스트 - ‘Journal du petit déjeuner(아침 시간의/시간에 읽는 조간신문): Delerm, Philippe(1997), ‘Journal du petit déjeuner’, *La Première gorgée de bière et autres plaisirs minuscules*, Paris: Gallimard, p. 71.
 과제 4) 신문 기사 텍스트 - ‘Sans smartphone, notre productivité augmente de 26%(스마트폰이 없다면, (개인)생산성 26%만큼 더 향상/증가)’ in Figaro: <http://www.lefigaro.fr/vie-bureau/2016/11/18/09008-20161118ARTFIG00070-sans-smartphone-notre-productivite-augmente-de-26.php>

	<p>네이버 뉴스에서 찾아본 결과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뉴스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디지털 치매 증후군’ 이라고 정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감이 강하지만, 치매라는 질병에 대해 심각하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기기의 발달에 힘입어 스스로의 뇌를 사용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게 된 현대인들의 기억력 감퇴현상..(중략), 하지만 이 디지털 치매증후군은 기억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치매와는 달리 기억이 잠시 나지 않게 되는 건망증과 유사한 경우로 질병이라 하기에는 가벼운 기억장애 정도라 하겠다.” 라고 언급되어 있어서 이것을 참고해 디지털 치매 증후군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Y)</p> <p>참조한 사이트) https://kasperskycontenthub.com/usa/files/2015/06/Digital-Amnesia-Report.pdf http://www.tvreport.co.kr/?c=news&m=newsview&idx=668892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99&contents_id=25181</p>
<p>학습자가 과제 마지막에 작성한 참조 자료</p>	<p>동아 프라임 불한사전, ‘linguee’ 사전(www.linguee.fr), 불불 사전(larousse),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뉴스, 구글(www.google.com, www.google.fr) 검색을 통한 관련 사이트, 참조한 기사문(병렬 텍스트) 사이트 -</p> <p>https://www.thailand-business-news.com/tech/55086-drop-phone-increase-productivity-26.html http://www.plenglish.com/index.php/component/content/?o=rn&id=5908&SEO=not-using-cell-phones-can-improve-productivity-by-26-percent-study http://www.20minutes.fr/high-tech/1963559-20161117-smartphones-reduisent-productivite-20-selon-etude http://www.business-standard.com/article/technology/not-using-smartphones-can-improve-productivity-by-26-says-study-116082900664_1.html</p>

〈표 3〉 ‘Big 6 정보 리터러시 모델’ 기반 번역 과정 보고서 (Y/N) 학생 예시

3.2. 학습자의 정보 자료 방법 예시

‘Big 6 정보 리터러시 모델’ 기반 번역 과정 보고서 상의 학습자가 활용한 자료 조사 방법의 종류 및 예시는 다음과 같다.

3.2.1. 사전 활용 학생 예시

1) 이중 언어 사전(불영사전)

“이 문장에서는 ‘sont choqués’를 해석하는데 상당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한불사전에서는 ‘Choquer’의 뜻이 ‘충돌하다, 부딪히다, 감정을 상하게 하다.’ 등이 있어 맞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wordreference’ 영불사전에서 ‘choquer’의 뜻 중 ‘upset’을 선택하여 ‘분개하다’로 번역하였습니다. 참고자료- wordreference 영불사전”

2) 해당 단일어 사전(불불사전)

“‘불불사전(larousse)’에 ‘se constituer’를 검색해보면 ‘se former’라는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90%에 해당하는 프랑스인들이 재산 모으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 하였습니다. 참고자료- Larousse 불불 사전”

3) 일반 외국어 사전(불한사전), 해당 단일어 사전(한국어사전)

“‘préstations sociale’의 번역의 경우 네이버 불한사전에서는 ‘사회 보장 급여’라고 표시 되어 있는데 앞에 소득의 정의에서 따온 다른 고유 명사들과 통일성을 주고 싶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사회적 소득’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이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원문에는 소득이란 단어 바로 뒤에 소득의 어원에 대해서 언급해주는 괄호가 있는데 이는 프랑스어의 어원이기 때문에 본문에 괄호로 언급하기에는 이해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지우고 각주로 따로 프랑스어의 어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3727&cid=40942&categoryId=31815>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19554200>”

4) 맥락 사전, 이중 언어사전(영한사전)

“‘Pire’는 ‘www.linguee.fr’ 사전에 따르면 영어로 ‘worse’라는 뜻입니다. ‘worse’를 네이버 영한사전에서 찾으면 부사로 ‘더 나쁘게, 더 심각한 것은’ (도입부분에 쓰이는 경우)으로 쓰여 있어서 이것을 참고해 번역하였습니다. 참조 자료- <http://www.linguee.fr/francais-anglais/search?source=auto&query=pire>, 네이버 영한 사전.”

5) 맥락사전 (www.linguee.fr⁵⁾), 백과사전

“우선 ‘un patrimoine financier’의 의미 파악을 위해 ‘www.linguee.fr’에 검색해본 결과 이 단어가 영어로는 ‘financial asset’, 즉 ‘금융 자산’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번역할 때 금융자산에 대한 네이버 백과사전의 정의를 참고하였습니다. 금융자산과 반대되는 말에는 비 금융자산이 있는데 이것에 대표는 바로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이 부분을 번역하였습니다. 참고 사이트- <http://www.linguee.fr/francais-anglais/search?source=auto&query=un+patrimoine+financier>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6647&cid=43667&categoryId=43667>”

〈표 4〉 학습자의 사전 활용 예

- 5) 학생들이 활용하였던 ‘www.linguee.fr’는 단순히 단어 차원의 사전이 아닌 찾고자 하는 프랑스어의 단어나 숙어, 구절 차원에 해당되는 다양한 프랑스어 원문의 사례들과

3.2.2. 그 밖의 참조 자료 방법 학생 예시

1) 인터넷 검색을 통한 관련 사이트
 “처음 원문을 읽었을 때는 ‘une face commune et une face nationale’이 무엇을 뜻하는지 도무지 감피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face nationale”을 검색해봤더니 ‘Faces nationales - European Central Bank’ 제목의 사이트를 바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une face commune’은 동전 가장자리의 별 12개에 해당하고, ‘une face nationale’은 유로존 국가 각각의 고유 문양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조 자료- (<https://www.ecb.europa.eu/euro/coins/2euro/html/index.fr.html>)”

2) 인터넷 블로그
 “‘google’ 사이트 에 ‘프랑스 전문의 상환’이라고 검색하여 관련 블로그(http://pontneuf.org/xe/index.php?mid=aboutfrance&sort_index=readed_count&order_type=asc&page=55&document_srl=28214) 사이트로 접속하여 “주치의가 아닌 다른 의사의 검진을 받기 전에 먼저 주치의의 진료를 받아야 제대로 의료 수가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치의를 지정하지 않은 환자가 주치의가 아닌 타의사의 직접 진료를 받는다면, - 의료 수가의 환불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협정 의료 수가의 30% 선) - 진료비의 할증액을 부담 하게 됩니다(협정 의료 수가 초과 진료비는 의료 보험 공단에서 환불 해 주지 않습니다)”, “진료 절차를 준수 여부에 따라 의료 수가 환불 요율이 달라집니다.”라는 글을 보니 원문의 뜻이 이해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번역했습니다. 참조자료- <http://www.vie-publique.fr/decouverte-institutions/finances-publiques/protection-sociale/grands-domaines/quelles-sont-differentes-prestations-sociales.html>”

3) 인터넷 검색을 통한 이미지 참조
 “la perche à selfie”가 셀카카메라를 위한 봉으로 해석하면 부자연스러워 구글 이미지에 쳐 보았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셀카봉’으로 더 많이 쓰여 ‘셀카봉’으로 번역했다.
 참 조 자 료 -
https://www.google.co.kr/search?q=perche+%C3%A0+selfie&source=lnms&tbn=isch&sa=X&ved=0ahUKEwj168r5ttfQAhWEFJKHTYhC6YQ_AUICCgB&biw=670&bih=584
 ‘carte à puce’는 네이버 사전에 ‘스마트 카드’라고 나오는데 ‘carte vitale’을 구글에 검색 했을 때 이미지로 보면 여기서 ‘puce’는 반도체 칩으로 스마트 카드에 삽입된 반도체 칩에 고객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카드 라고 번역 하는 것 보다 반도체 칩이 삽입된 카드에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한국 독자의 이해를 돕기에는 더욱 적합 할 것이라고

이에 해당되는 영어 번역의 사례들을 나열한 사전이다. 즉, 단순히 단어 단위의 등가어가 아닌 텍스트와 문맥 안에서의 다양한 프랑스어의 의미를 영어로 된 번역 사례들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맥락 사전’으로 언급하였다.

생각하여 이러한 설명을 각주에 달아 번역하였습니다.

참조 이미지 자료- https://en.wikipedia.org/wiki/Carte_Vitale”

4) 인터넷 검색을 통한 신문 기사(병렬 텍스트)참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문에 있어 뭔가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병렬 텍스트들을 찾아본 결과 영어로는 “Contrary to expectations, the absence of the smartphone didn't make participants nervous. Anxiety levels were consistent across all experiments.” 라는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neanmoins’(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로 함축적으로 표현 되어 있지만, 그 의미를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영어문장처럼 ‘contrary to expectations’의 의미를 추가하는 것이 더 이해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려와는 달리’라는 말을 번역에 추가하였습니다. 참조한 병렬텍스트 -

<https://www.thailand-business-news.com/tech/55086-drop-phone-increase-productivity-26.html>

<http://www.plenglish.com/index.php/component/content/?o=rm&id=5908&SEO=not-using-cell-phones-can-improve-productivity-by-26-percent-study>”

5) 관련 사이트 및 논문 참조

“의료비 상환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번역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참고한 자료로는 아래의 것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병원을 3가지 ‘secteur’로 나누어서 상환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기본적으로 협약에 의해 정해진 진료비(tarif conventionné)가 있고 ‘secteur 1’에 해당하는 병원의 경우 이 가격을 준수하며 사회 보장 제도에 의해 70% 환급받습니다.(보통 일반의가 여기에 해당한다) ‘secteur 2’에 해당하는 병원의 경우 진료비는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으며 사회 보장 제도는 협약된 진료비에 70% 만큼만 환급해줍니다. ‘secteur 3’에 해당하는 병원들의 경우 사회 보장 제도의 환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적인 보험에 가입 하지 않는 이상 지원받기는 불가능 합니다. 이를 알고 번역하면 ‘tarif conventionné’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번역 할 수 있다. ‘협정 가격’이라고 단순히 표현하기 보다는 ‘협약에 의해 정해진 진료비’ 라고 번역하면 독자도 이해하기 쉽고 ‘pour les vistes pour les soins medicaux’라고 길게 늘어지는 원문을 진료비라고 오히려 간단하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조 자료-

<http://www.radiancehumanis.com/conseils-sante/comprendre-la-mutuelle/secteur-conventionne>

<http://droit-finances.commentcamarche.net/faq/26736-tarif-conventionnel-definition>

<http://sante-medecine.journaldesfemmes.com/contents/467-comprendre-les-tarifs-des-medecins-le-secteur-1-et-le-secteur-2>

논문) 김대중 (2012) 「프랑스 의료 서비스 공급체계와 시사점」, 『보건·복지 Issue&Focus』, 163: 2.”

〈표 4〉 사전 활용을 제외한 그 밖의 참조 자료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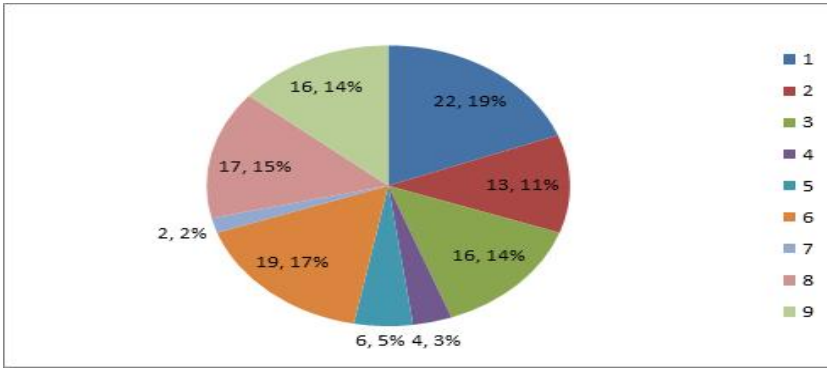
4.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기본 사항⁶⁾에 대한 학기 초 설문 조사결과에 따라 수업 난이도를 조정하였고 수업 후반부에는 학습자의 정보 리터러시 능력을 분석하고자 학생들에게 각 과제별, 텍스트 유형 및 난이도별 자료 조사 방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학기 초의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총 32명의 학생들은 번역 경험이 모두 없었고 프랑스어 능력 시험을 기준으로 총 32명 중 5명이 A2, 19명이 B1, 7명이 B2, 1명이 C1 수준으로 응답⁷⁾하였기에 주요 난이도인 B1을 기준으로 텍스트 난이도를 조정하였다. 따라서 학기 초의 난이도는 B1 수준으로 맞추고 학기 말에는 점차적으로 난이도를 높여 C1 수준으로 텍스트들을 선별하였다. 후반기 설문 문항은 크게 각 과제별 자료 조사 방법을 묻는 단답형 질문과 텍스트 유형 및 난이도별 자료 조사 방법의 변화에 관한 단답형과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었다⁸⁾.

각 과제 별 자료 조사 방법에 대한 단답형 질문과 응답, 그리고 학습자의 과제 분석⁹⁾을 통해 분석한 자료 조사 방법 결과는 각각 아래의 그래프(1-4)와 표(5-8)로 도출해 보았다.

-
- 6) 초기 설문 문항에 관해서는 본고의 부록 참조.
 - 7) 프랑스어 능력 시험 수준은 난이도에 따라 A1부터 C2까지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다(A1, A2, B1, B2, C1, C2).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사이트 참조 - <http://www.ciep.fr/delf-dalf>
 - 8) 후반기 설문 문항에 관해서는 본고의 부록 참조. 후반기 설문 문항은 학습자의 객관적인 답변을 수렴하기 위해 무기명으로 진행하였다.
 - 9) 학생들이 작성한 네 과제에 있어 각 과제당 검색한 자료를 산출하여 각 항목별 검색 인원수를 분석하였다.



〈그래프 1〉 과제 1 - 자료 조사 방식

해당 설문 문항- 첫 번째 과제 텍스트(Argent(돈))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주로 어디에서 검색 하였습니까? (중복 체크가능)

1) 일반 외국어 사전 (해당 외국어와 모국어, 예를 들어 불한사전), 2) 이중 언어사전 (서로 다른 외국어, 예를 들어 불영사전), 3) 해당 단어사전(동일 외국어 사전, 예를 들어 불불사전), 4) 한국어 관련 사전, 5) 전문 용어 사전, 6) 백과사전, 7) 관련 서적 및 논문, 8) 인터넷 검색을 통한 관련 사이트 참조, 9) 관련 기사(병렬 텍스트, comparable te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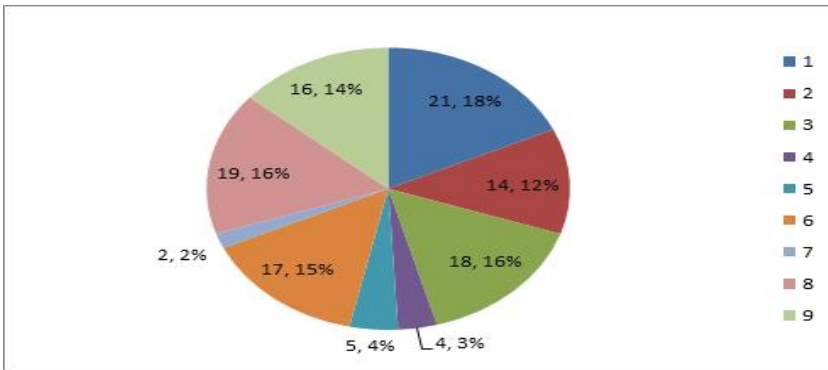
일반 외국어사전 (불한사전)	이중 언어사전 (불영사전)	해당 단어사전 (불불사전)	해당 단어사전(한국어사전)	이중 언어사전 (영한사전)	맥락사전 (www.linguce.fr)
20, 13% ¹⁰⁾	15, 10%	16, 10%	6, 4%	5, 3%	16, 10%
인터넷 검색을 통한 관련 사이트 참조	인터넷 블로그	인터넷 검색을 통한 이미지 참조	인터넷 검색을 통한 신문 기사 참조(병렬 텍스트)	서적 및 논문 참조	백과사전
18, 12%	10, 6%	4, 2%	16, 10%	3, 2%	20, 13%

〈표 5〉 과제 1 분석을 통한 학생들의 자료 조사 방식

우선 첫 번째 과제였던 사회문화텍스트, ‘Argent(돈)’텍스트의 번역을 수행하면서 학생들이 검색한 자료 조사 방법을 살펴보자. 자료 조사 방법에 관한 설문 결과인 위의 그래프 1)을 보면, 학생들은 주로 ‘일반 외국어 사전’ (응답 수;

10) 학습자가 제출한 번역 과정 보고서 상에서 산출한 각 항목별 검색 인원수와 비율을 가리킨다.

22, 19%)을 검색했다고 언급했고, 뒤이어 ‘백과사전’ (응답 수; 19, 17%), ‘인터넷 검색을 통한 관련 사이트’ (응답 수; 17, 15%), ‘해당 단어사전’ (응답 수; 16, 14%), ‘관련 기사(병렬 텍스트, comparable text)’ (응답 수; 16, 14%) 순으로 응답률이 큰 격차 없이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학습자가 단순히 일반 외국어 사전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백과사전 및 관련 인터넷 사이트와 기사 등 다양한 정보 자료를 참조했다는 사실이다. 위의 과제1 분석 결과표 5)을 통해서도 학습자가 다방면의 참조 자료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학습자는 ‘일반 외국어 사전 (불한사전)’ (검색 인원 수; 20, 13%), ‘백과사전’ (검색 인원 수; 20, 13%)을 가장 많이 참조했으며, ‘이중 언어 사전’ (검색 인원 수; 15, 10%) ‘해당 단어 사전’ (불불사전) (검색 인원 수; 16, 10%)이외에도 ‘맥락사전(www.linguee.fr)’ (검색 인원 수; 16, 10%)을 활용하였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 (검색 인원 수; 18, 12%)나 ‘신문 기사(병렬 텍스트)’ (검색 인원 수; 16, 10%)등의 다양한 참조자료를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프 2〉 과제 2 - 자료 조사 방식

해당 설문 문항- 두 번째 과제 텍스트(Le système de la santé en France(프랑스의 의료 시스템))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주로 어디에서 검색 하였습니까?(중복 체크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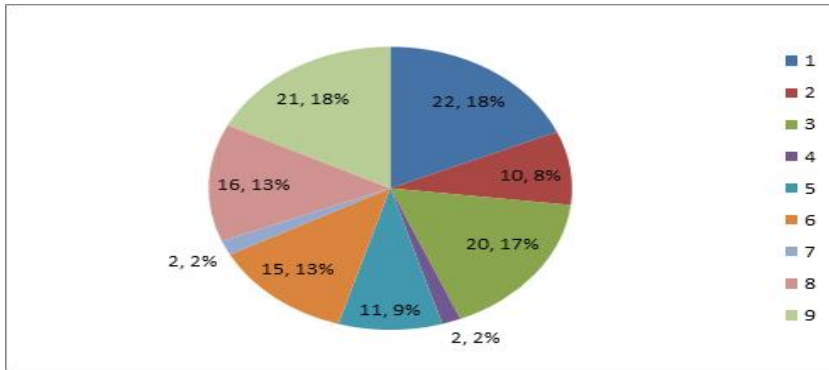
- 1) 일반 외국어 사전 (해당 외국어와 모국어, 예를 들어 불한사전), 2) 이중 언어사전 (서로 다른 외국어, 예를 들어 불영사전), 3) 해당 단어사전(동일 외국어 사전, 예를 들어 불불사전), 4) 한국어 관련 사전, 5) 전문 용어 사전, 6) 백과사전, 7) 관련 서적 및 논문, 8) 인터넷 검색을 통한 관련 사이트 참조, 9) 관련 기사(병렬 텍스트, comparable text)

일반 외국어사전 (불한사전)	이중 언어 사전 (불영사전)	해당 단일어 사전 (불불사전)	해당 단일어 사전 (한국어사전)	이중 언어사전 (영한사전)	맥락사전 (www.ling ucee.fr)
19, 13%	14, 10%	12, 8%	5, 3%	4, 2%	14, 10%
인터넷 검색을 통한 관련 사이트 참조	인터넷 블로그	인터넷 검색을 통한 이미지 참조	인터넷 검색을 통한 신문 기사 참조(병렬 텍스트)	서적 및 논문 참조	백과사전
15, 10%	12, 8%	9, 6%	14, 10%	3, 2%	18, 12%

〈표 6〉 과제 2 분석을 통한 학생들의 자료 조사 방식

학습자들이 행하는 다양한 정보 자료의 검색 양상은 두 번째 과제와 네 번째 과제에 관한 설문 결과 및 과제 분석 결과에서도 발견된다. 두 번째 과제인 프랑스 의료 시스템에 관한 ('Le système de la santé en France(프랑스의 의료 시스템)') 텍스트 번역에서 학생들이 검색한 자료 조사 방법인 위의 그래프 2)를 살펴보자. 설문 결과의 응답률을 보면 학생들은 '일반 외국어 사전' (응답 수; 21, 18%), '인터넷 검색을 통한 관련 사이트' (응답 수; 19, 16%), '해당 단일어 사전' (응답 수; 18, 16%), '백과사전' (응답 수; 17, 15%), '관련 기사(병렬 텍스트, comparable text)' (응답 수; 16, 14%) 순으로 비슷한 응답률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과제 2 분석 결과표 6)를 보아도 '일반 외국어 사전(불한사전)' (검색 인원 수; 19, 13%), '백과사전' (검색 인원 수; 18, 12%), '인터넷 사이트' (검색 인원 수; 15, 10%), '불영사전' (검색 인원 수; 14, 10%), '맥락 사전(www.linguee.fr)' (검색 인원 수; 14, 10%), '신문 기사(병렬 텍스트)' (검색 인원 수; 14, 10%) 등의 다양한 정보 자료들 간의 비슷한 검색 비율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제에서 학생들은 다른 과제에 비해 '인터넷 블로그' (첫 번째 과제 - 검색 인원 수; 10, 6%; 두 번째 과제 - 검색 인원 수; 12, 8%, 세 번째 과제 - 검색 인원 수; 0, 0%, 네 번째 과제 - 검색 인원 수; 2, 1%)를 더욱더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사회 문화 텍스트에 속하는 두 텍스트에 있어 학생들은 프랑스인의 세금(과제 1) 및 프랑스의 의료 보험 제도(과제 2)에 관한 사회문화적 지식을 파악해야만 했기에 수필 텍스트인 세 번째 텍스트나 신문 텍스트인 네 번째 텍스트에서보다 더 많이 현 프랑스 거주자들의 블로그

를 검색한 것으로 추론된다.11)



〈그래프 3〉 과제 4 - 자료 조사 방식

해당 설문 문항- 네 번째 과제 텍스트(Sans smartphone, notre productivité augmente de 26%(스마트폰이 없다면, (개인)생산성 26%만큼 더 향상/증가)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주로 어디에서 검색 하였습니다니까?(중복 체크가능)

1)일반 외국어 사전 (해당 외국어와 모국어, 예를 들어 불한사전), 2)이중 언어사전 (서로 다른 외국어, 예를 들어 불영사전), 3)해당 단일어사전(동일 외국어 사전, 예를 들어 불불사전), 4)한국어 관련 사전, 5)전문 용어 사전, 6)백과사전, 7)관련 서적 및 논문, 8)인터넷 검색을 통한 관련 사이트 참조, 9)관련 기사(병렬 텍스트, comparable text)

일반 외국어사전 (불한사전)	이중 언어사전 (불영사전)	해당 단일어사전 (불불사전)	해당 단일어사전 (한국어 사전)	이중 언어사전 (영한사전)	맥락사전 (www.linguee.fr)
16, 13%	13, 10%	12, 9%	4, 3%	3, 2%	14, 11%
인터넷 검색을 통한 관련 사이트 참조	인터넷 블로그	인터넷 검색을 통한 이미지 참조	인터넷 검색을 통한 신문 기사 참조(병렬 텍스트)	서적 및 논문 참조	백과사전
12, 9%	2, 1%	11, 9%	16, 13%	2, 1%	16, 13%

〈표 7〉 과제 4 분석을 통한 학생들의 자료 조사 방식

네 번째 과제인 ‘Smartphone(스마트폰)’ 관련 신문 기사 텍스트 번역에 있

11) 이에 관해서는 본고의 3.2.2. 그 밖의 자료 참조 방법 중 인터넷 블로그 예시 참조.

어 학생들은 ‘일반 외국어 사전’ (응답 수; 22, 18%), ‘관련 기사(병렬 텍스트, comparable text)’ (응답 수; 21, 18%), ‘해당 단일어사전’ (응답 수; 20, 17%), ‘인터넷 검색을 통한 관련 사이트’ (응답 수; 16, 13%), ‘백과사전’ (응답 수; 15, 13%) 순으로 자료를 참조 했다고 응답했다(위의 그래프 3 참조). 정리하자면, ‘일반 외국어 사전, 해당 단일어 사전, 관련 기사, 관련 사이트, 백과사전’ 등의 참조 자료들은 첫 번째, 세 번째 과제에서도 학습자가 가장 많이 참조한 자료들이며 세 과제에 있어 이러한 자료들의 참조 비율(그래프 1, 2, 3 참조)이 각기 비슷한 응답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제 4의 분석 결과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과제 4에서도 ‘일반 외국어 사전(불한사전)’ (검색 인원 수; 16, 13%), ‘신문 기사(병렬 텍스트)’ (검색 인원 수; 16, 13%), ‘백과사전’ (검색 인원 수; 16, 13%), ‘맥락사전(www.linguee.fr)’ (검색 인원 수; 14, 11%), ‘불영사전’ (검색 인원 수; 13, 10%), ‘인터넷 사이트’ (검색 인원 수; 12, 9%), ‘불불사전’ (검색 인원 수; 12, 9%) 등의 비슷한 수치의 검색 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과제 4(표 7 - 13%, 그래프 3 - 18%에 있어서는 다른 과제들(과제 1(표 5 - 10%, 그래프 1 - 14%), 과제 2(표 6 - 10%, 그래프 2 - 14%), 과제 3(표 8 - 5%, 그래프 4 - 3%)에 비해 신문기사(병렬 텍스트)의 참조 활용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신문 기사문이라는 텍스트 유형의 특성으로 인해 유사한 내용이거나 관련된 내용의 기사문(병렬 텍스트)을 학습자가 더욱더 많이 활용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었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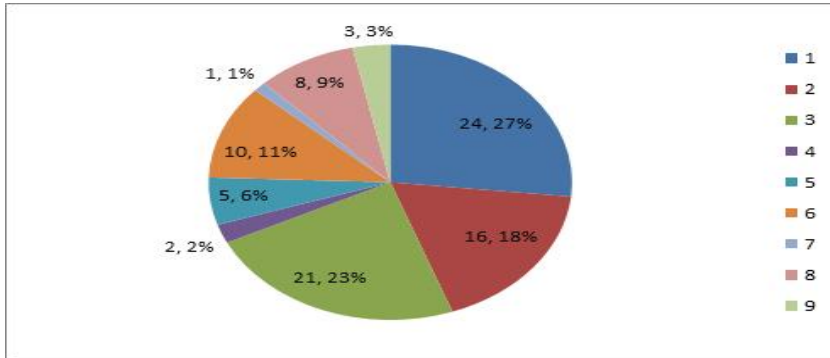
두 번째 과제와 네 번째 과제에 있어 학생들은 다른 과제에 비해 인터넷을 통한 ‘이미지 참조’ (두 번째 과제 - 검색 인원 수; 9, 6%, 네 번째 과제 - 검색 인원 수; 11, 9%, 첫 번째 과제 - 검색 인원 수; 4, 2% 세 번째 과제 - 검색 인원 수; 5, 4%)를 더욱더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의료 보험과 관련된 다소 생소해 보일 수 있는 단어 ‘Carte vitale(의료 보험 카드, IC 카드)’의 번역어를 찾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상의 이미지 검색을 통해 적합한 대응어를 이끌어 내었다¹³⁾.

또한 과제 1, 2, 4의 분석을 통해 학습자가 가장 많이 참조한 자료는 ‘백과사전’ 과 ‘일반 외국어 사전’ 임을 알 수 있었고, 두 자료의 검색 비율이 거의

12) 이에 관해서는 본고의 3.2.2. 그 밖의 자료 참조 방법 중 기사문(병렬 텍스트)에서 참조

13) 이에 관해서는 본고의 3.2.2. 그 밖의 자료 참조 방법 중 이미지 검색 예시 참조

차이가 없었기에(표 5, 6, 7 참조) 정보 전달 텍스트 번역에 있어 ‘백과사전’의 높은 활용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래프 4〉 과제 3 - 자료 조사 방식

해당 설문 문항- 세 번째 과제 텍스트(Journal du petit déjeuner(아침 시간의/시간에 읽는 주간신문)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주로 어디에서 검색 하였습니까? (중복 체크가능)

1)일반 외국어 사전 (해당 외국어와 모국어, 예를 들어 불한사전), 2)이중 언어사전 (서로 다른 외국어, 예를 들어 불영사전), 3)해당 단일어사전(동일 외국어 사전, 예를 들어 불불사전), 4)한국어 관련 사전, 5)전문 용어 사전, 6)백과사전, 7)관련 서적 및 논문, 8)인터넷 검색을 통한 관련 사이트 참조, 9)관련 기사(병렬 텍스트, comparable text)

일반 외국어사전 (불한사전)	이중 언어사전 (불영사전)	해당 단일어사전 (불불사전)	해당 단일어사전 (한국어 사전)	이중 언어사전 (영한사전)	백과사전 (www.linguee.fr)
23, 20%	18, 16%	17, 15%	4, 3%	3, 2%	13, 11%
인터넷 검색을 통한 관련 사이트 참조	인터넷 블로그	인터넷 검색을 통한 이미지 참조	인터넷 검색을 통한 신문 기사 참조(병렬 텍스트)	서적 및 논문 참조	백과사전
7, 6%	0, 0%	5, 4%	6, 5%	1, 0%	13, 11%

〈표 8〉 과제 3 분석을 통한 학생들의 자료 조사 방식

과제 1, 과제 2, 과제 4의 번역에서 학습자가 다양한 자료를 참조한 것과는 달리 수필 장르의 과제 3 텍스트(‘Journal du petit déjeuner’)의 번역 과제에서

는 학습자가 참조한 자료가 주로 사전(주로 불한사전, 불불사전, 불영사전)에만 편중되어 있었다. 위의 그래프 4)에서 학생들의 응답률을 분석해 보면 ‘일반 외국어 사전’ (응답 수; 24, 27%), ‘해당 단일어사전’ (응답 수; 21, 23%), ‘이중 언어사전’ (응답 수; 16, 18%), ‘백과사전’ (응답 수; 10, 11%) 순 이다.

과제 4의 참조 자료 결과인 분석표 8)의 결과도 이와 일맥상통하였는데, 학습자는 ‘일반 외국어 사전(불한사전)’ (검색 인원 수; 23, 20%), ‘불영사전’ (검색 인원 수; 18, 16%), ‘불불사전’ (검색 인원 수; 17, 15%), ‘맥락사전 (www.linguee.fr)’ (검색 인원 수; 13, 11%), ‘백과사전’ (검색 인원 수; 13, 11%)등으로 학습자가 주로 사전을 참조 했으며, ‘인터넷 사이트’ (검색 인원 수; 7, 6%)나 ‘신문 기사(병렬 텍스트)’ (검색 인원 수; 6, 5%)등의 자료는 이에 비해 다소 적게 활용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텍스트의 유형 혹은 난이도에 따른 자료 조사 방법의 변화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와도 맞닿아 있었다.

총 32명 중 24명(75%)의 학생들이 ‘텍스트의 유형과 난이도에 따라 자료 조사 방법의 변화가 있었다.’¹⁴⁾라고 응답했는데 자료 조사방법의 변화 이유에 관한 개방형 질문에 대해 주요 학생의 응답은 다음의 표와 같다.

<p>핵심 키워드(주요 견해)) 정보 텍스트와는 달리 난해한 수필 텍스트 번역에 있어 관련 자료 검색의 어려움</p>
<p>(학생 견해 1) “수필은 난이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텍스트였고 텍스트 유형으로 보아도 다른 세 텍스트는 정보 전달 텍스트인데 비해 수필은 문학 텍스트여서 자료 검색 방법이 수필만 달랐던 것 같다. 수필의 경우에는 다른 텍스트 유형과는 달리 프랑스 사람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나 은유나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불한, 불불, 불영사전을 주로 활용했는데 사전의미와 다른 경우도 많았으며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반면 정보 전달의 글에서는 잘 파악이 안 되었던 전문용어나 관련 지식에 있어 인터넷 사이트, 관련 기사문, 이미지 검색 등 수필 텍스트 보다는 더욱 더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뜻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p>

14) ‘과제(번역 과정 보고서)를 수행하면서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 혹은 난이도에 따라 자료 조사 방법론의 변화가 있었는가?’의 질문에 대한 응답률은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 자료 조사 방법의 변화가 있었다.’(6명), ‘텍스트의 난이도에 따라 자료 조사 방법의 변화가 있었다.’(2명), ‘텍스트의 유형과 난이도에 따라 자료 조사 방법의 변화가 있었다.’(24명), ‘자료 조사 방법의 변화가 없었다.’(0)명

<p>(학생 견해 2) “가장 어려운 텍스트는 수필 텍스트였는데 함축적이고 비유적인 문장 및 구어 등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참조할만한 자료가 별로 없었다. 따라서 인터넷 사이트 보다는 단순히 사전을 활용하여 과제를 했다. 반면 나머지 신문이나 잡지 같은 정보 텍스트에 있어서는 조사할 부분이 매우 많았는데 다양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필보다는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p>
<p>(학생 견해 3) “유형과 난이도에 따라 찾아야 할 참고 자료가 다른 것 같다. 먼저 유형이 다른 수필 텍스트는 다양한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다른 잡지나 기사문 번역에 비해 참고할 만한 자료가 거의 없어서 사전만을 활용했으며 자료 조사에 있어 어려움을 느꼈다. 사실 전문 용어나 지식을 요하는 의료 시스템 관련 텍스트가 가장 어려웠는데 이 경우에는 다른 텍스트와는 달리 더 많은 관련 사이트, 기사문, 백과사전, 논문, 이미지 검색 등 더 많은 시간과 들여 더 많이 검색했어야만 했다.”</p>
<p>(학생 견해 4) “다른 정보 자료 텍스트와는 달리 수필 텍스트는 단어나 문장 자체가 생소한 표현들이 많고 의미가 은유적이고 함축적이어서 참조할만한 자료가 별로 없었다. 따라서 주로 사전을 통해 의미를 유추했지만 해석하기가 어려웠다. 반면 스마트폰 관련 텍스트와 같은 기사문은 관련 영어 기사문과 같은 병렬 텍스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 검색을 통하여 의미를 파악하고 수필 텍스트 보다 더 수월하게 번역할 수 있었던 것 같다.”</p>
<p>(학생 견해 5) “유형이 다른 수필 텍스트가 어렵다기 보다는 무엇을 찾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니다. 반면 제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던 전문 지식이 많았던 의료 보험 제도 관련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에 비해 더 많은 다양한 검색을 통해 대부분의 전문 용어와 같은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할 수 는 있었지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p>
<p>(학생 견해 6) “정보 텍스트와는 유형이 다른 수필 텍스트는 문장의 표현들을 이해하고도 문학적인 비유적 느낌 때문에 번역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어려웠습니니다. 단어 뜻은 알겠는데 문장의 명확한 의미를 알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나 구글 검색 같은 부차적인 매체 활용이 번역하는 데 있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글을 여러 번 읽고 큰 문맥 하에서 단위적인 문장들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p>
<p>(학생 견해 7) “수필 번역에 있어 감각적 어휘와 표현을 한국어로 옮기는 데에 힘든 점이 있었습니니다. 특히 «ce serait déjà se précipiter dans le stress des phrases martelées en coups de poing»와 같은 문장처럼 원문에서의 느낌이 이해되지 않아 번역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니다. 수필은 작가의 의도와 문체를 담고 있기에, 의미가 해석되더라도 마음으로 와 닿지 않는다면 올바른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에 진행하였던 정보성 텍스트의 번역보다는 참고할 만한 자료들도 없었기에 사전에만 주로 의존했고 번역에 어려움이 컸습니니다.”</p>

<표 9> 난이도 및 유형별 학습자의 자료 조사 방식의 변화 이유

위의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는 텍스트 유형에 있어 네 텍스트 중

유형이 다른 수필의 경우에는 은유적이고 함축적인 의미 그리고 사회문화적 지식 및 일상 표현, 문체 등의 의미 파악을 위해 주로 사전을 활용했으며 나아가 관련 자료 검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수필 텍스트 과제에 있어 주로 사전만을 참조하는 학습자의 자료 조사 방법 결과와도 일치한다. 동일한 유형의 정보 텍스트라 할지라도 가장 어려운 텍스트 번역에 있어서 더 많은 그리고 다양한 검색을 통하여 전문 용어나 지식관련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제시한 내용들은 문제 해결과정에 있어 ‘Big 6 정보 리터러시 모델’의 과제 확인, 정보 탐색, 정보 찾기, 정보 활용, 통합으로 구성되는 5 단계를 기반으로 하여 학습자가 작성한 번역 과정 보고서와 후반기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본 학습자의 정보 자료 방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Big 6 정보 리터러시 모델’의 마지막 6단계인 최종 과제물 및 해결 과정의 평가 단계에 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학습자가 제시한 해결 과정 및 해결책의 적절성 여부에 있어 학습자가 각 해결 과정 마다 제시한 ‘Y(Yes)’와 ‘N(No)’의 수를 총괄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과제 1 (사회문화 텍스트)	과제 2 (사회 문화 텍스트)	과제 3 (수필 텍스트)	과제 4 (기사문 텍스트)
Y 총 개수, %	222(55%)	247(57%)	109(39%)	146(64%)
N 총 개수, %	176(44%)	185(42%)	169(60%)	82(35%)
총 문제 해결 과정 개수(Y+N)	398	432	278	228

〈표 10〉 학습자의 번역 해결 과정 및 해결책 평가(Y/N)

이러한 결과는 번역 과제에 있어 가장 어려운 텍스트와 가장 쉬운 텍스트를 묻는 질문의 응답과도 맞닿아 있었다. 총 32명 중 24명(75%)의 학생들이 과제 3에 해당하는 수필 텍스트가 가장 어려웠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6명은 과제 2(‘Le système de la santé en France’(프랑스의 의료 시스템)- 사회문화 텍스

트), 2명은 과제 1(‘Argent(돈)’- 사회문화 텍스트)이 가장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가장 쉬운 텍스트로는 32명 중 28명(87%)이 과제 4(‘Smartphone(스마트폰)’- 신문 기사 텍스트)가 가장 쉽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4명은 과제 1(‘Argent(돈)’- 사회문화 텍스트)이 가장 쉬웠다고 응답하였다.

앞서 제시한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쉬웠다고 응답한 과제 4) 텍스트는 총 문제 해결 과정 개수도 228개로 가장 낮았으며 과제 1과 과제 2에서 긍정인 ‘Y’와 부정인 ‘N’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것과는 달리 ‘Y’(146, 64%)의 비율이 ‘N’(82, 35%)의 비율보다 월등하게 높아 ‘N’의 2배가량에 달했다. 또한 과제 3의 문제 해결 과정 총 개수는 278개로, 과제 1과 과제 2에 비해 그 수가 적으며 정보 텍스트에 속하는 과제 1, 2, 4와는 달리 부정인 ‘N’의 비율(169, 60%)이 긍정인 ‘Y’(109, 39%)의 비율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에게 수필 텍스트의 이해가 가장 어려웠고 번역하는 데 있어 관련 참조 자료 찾기도 어려웠기에 번역이 가장 힘들었다는, 앞서 도출한 결과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정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인 ‘정보 리터러시’ 능력은 21세기 정보화 사회 그리고 곧 다가올 4차 산업 혁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필수 능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서론에서 밝힌 몇몇 번역학자들은 이러한 정보 리터러시 개념을 번역에 적용하여 기존에 명명했던 ‘도구적 능력’, ‘자료 능력’, ‘리서치 능력’을 ‘번역가에게 필요한 정보 리터러시 능력’, 즉 ‘번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행위 능력’으로 정의하고 대학과 전문 번역 기관의 교육과정에 있어 정보 리터러시 교육과 연구가 부재한 현 상황을 비판하였다.

학생들이 번역과정에서 정보 리터러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여러 학자들이 제안하는 번역 과정 중심 문제 해결 교수법의 목표와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 하에 본 연구에서는 학부 번역 수업에서 에센베르그와 베르코비츠(1990)가 제시한 ‘Big 6 정보 리터러시 모델’ 기반 번역 과정 보고서를 학습자의 과제 방식으로 채택하고 적용하였다. 이후 학습자의 과제 분석과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학부 번역 학습자의 정보 리터러시 능력 현황을 파악하였고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몇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었다.

첫째, 사회문화 텍스트나 신문 기사문과 같은 정보 텍스트 번역에 있어 학습자는 ‘일반외국어 사전’을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으나 자료 조사 방법에 관한 각 항목별 응답률의 차이가 거의 없고 각기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 점에서 백과사전, 이중 언어 사전, 해당 단어사전, 맥락사전(www.linguee.fr), 인터넷 사이트, 신문 기사(병렬 텍스트)등의 다양한 참조 자료들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 중에서도 학습자의 과제 분석을 통해 정보 텍스트 번역에 있어 백과사전의 높은 활용 가능성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학자들이 주장했던, 학부 번역 수업에서 학생들이 자료 조사 능력 즉 정보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하기 어렵다고 하였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기사문 번역에 있어 관련 신문 기사(병렬 텍스트)의 높은 활용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사회문화 텍스트 번역에 있어 관련 지식과 용어 검색을 위해 현지인의 블로그를 더욱더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보 리터러시 활용 범위에 있어서도 르가르드(2009)가 언급하지 않은 맥락사전(www.linguee.fr), 이미지 검색, 블로그 활용 등의 다른 자료 조사 방법이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수필과 같은 문학 텍스트의 번역에 있어 학습자는 은유적이고 함축적인 의미, 사회문화적인 지식 및 표현 등의 파악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적절한 정보 자료 검색이 부재하였기에 주로 사전만을 검색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가 본인이 작성한 해결 과정 및 최종 해결책에 있어 주로 긍정적(‘Y’)으로 대답한 다른 과제와는 달리 수필 텍스트 번역에 있어서는 부정적(‘N’)인 응답을 더 많이 언급한 사실과도 맞닿아 있다. 이를 통해 수필과 같은 문학 텍스트보다는 정보 텍스트의 번역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 정보 리터러시 능력이 더욱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도출해 볼 수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시사점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의 학부 학습자들은 충분한 정보 리터러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학부 과정에서도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수행하고 이러한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Big 6 정보 리터러시 모델’에 기반한 번역 과정 보고서는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효율적인 교육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교수자는 적절하고 신뢰할만한 참조 자료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적절한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 이은 후속 연구로서 ‘학습자의 활용한 자료의 타당성과 관련된 학습자의 정보 리터러시 분별 능력’과 ‘번역에 있어 정보 리터러시의 타당성에 관한 기준’에 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경험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록 - 수업 전반기와 후반기 설문 문항.

전반기 설문 문항

- 1. 현재 프랑스어 능력 시험(Delf/Dalf)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1)자격증이 없다. 2)자격증이 있다 - 델프(Delf)/달프(Dalf) ()단계
- 2. 자격증이 없다면 본인의 프랑스어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델프(Delf)/달프(Dalf) ()단계
- 3. 번역 경험이 있는 경우 명시해주세요.
번역 기간 ()번, 번역 횟수 ()년
어떠한 번역을 수행하였나요?

- 4. 과제 횟수는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1회 2) 2회 3) 3회 4) 4회 5) 5회 6) 6회 7) 한주에 한번 (다루는 모든 텍스트 과제 부여)

성명: 학년:

후반기 설문 문항

- 1-1. 첫 번째 과제 텍스트 (Argent)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주로 어디에서 검색 하였습니까? (중복 체크 가능)
1)일반 외국어 사전 (해당 외국어와 모국어, 예를 들어 불한사전), 2)이중 언어 사전 (서로 다른 외국어, 예를 들어 불영사전), 3)해당 단일어사전(동일 외국어 사전, 예를 들어 불불사전), 4)한국어 관련 사전, 5)전문 용어 사전, 6)백과사전, 7)관련 서적 및 논문, 8)인터넷 검색을 통한 관련 사이트 참조, 9)관련 기사(병렬 텍스트, comparable text)
기타)
- 1-2. 두 번째 과제 텍스트 (Le système de la santé en France)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주로 어디에서 검색 하였습니까? (중복 체크 가능)

1)일반 외국어 사전 (해당 외국어와 모국어, 예를 들어 불한사전), 2)이중 언어 사전 (서로 다른 외국어, 예를 들어 불영사전), 3)해당 단일어사전(동일 외국어 사전, 예를 들어 불불사전), 4)한국어 관련 사전, 5)전문 용어 사전, 6)백과사전, 7)관련 서적 및 논문, 8)인터넷 검색을 통한 관련 사이트 참조, 9)관련 기사(병렬 텍스트, comparable text)

기타)

1-3. 세 번째 과제 텍스트인 수필 텍스트(Journal du petit déjeuner) 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주로 어디에서 검색 하였습니까? (중복 체크 가능)

1)일반 외국어 사전 (해당 외국어와 모국어, 예를 들어 불한사전), 2)이중 언어 사전 (서로 다른 외국어, 예를 들어 불영사전), 3)해당 단일어사전(동일 외국어 사전, 예를 들어 불불사전), 4)한국어 관련 사전, 5)전문 용어 사전, 6)백과사전, 7)관련 서적 및 논문, 8)인터넷 검색을 통한 관련 사이트 참조, 9)관련 기사(병렬 텍스트, comparable text)

기타)

1-4. 네 번째 과제 텍스트(Smartphone)의 과제를 수행 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주로 어디에서 검색하였습니까? (중복 체크 가능)

1)일반 외국어 사전 (해당 외국어와 모국어, 예를 들어 불한사전), 2)이중 언어 사전 (서로 다른 외국어, 예를 들어 불영사전), 3)해당 단일어사전(동일 외국어 사전, 예를 들어 불불사전), 4)한국어 관련 사전, 5)전문 용어 사전, 6)백과사전, 7)관련 서적 및 논문, 8)인터넷 검색을 통한 관련 사이트 참조, 9)관련 기사(병렬 텍스트, comparable text)

기타)

2. 한 학기 동안 과제 수행에 있어 가장 어려운 텍스트는 어떤 텍스트였으며 가장 쉬운 텍스트는 어떤 텍스트였습니까?

2-1) 가장 어려운 텍스트를 선택하시오.

1) 과제 1 2)과제 2 3)과제 3 4)과제 4

2-2) 가장 쉬운 텍스트를 선택하시오.

1) 과제 1 2)과제 2 3)과제 3 4)과제 4

3-1. 과제(번역 과정 보고서)를 수행하면서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 혹은 난이도에 따라 자료 조사 방법론의 변화가 있었는가?

- 1)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 자료 조사 방법의 변화가 있었다.
- 2) 텍스트의 난이도에 따라 자료 조사 방법의 변화가 있었다.
- 3) 텍스트의 유형과 난이도에 따라 자료 조사 방법의 변화가 있었다.
- 4) 자료 조사 방법의 변화가 없었다.

3-2. 만약 자료 조사 방법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 이유를 언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방형 질문)

성명: (선택사항) 학년: 현재 프랑스어 능력 시험(델프(Delf), 달프(Dalf)) 자격증이 있습니까?

- 1) 자격증이 아직 없다. 2) 델프(Delf)/달프(Dalf) ()단계
자격증이 없다면 본인의 프랑스어 실력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델프(Delf)/달프(Dalf) ()단계

참고문헌

- 1) 저서
Delem, Philippe (1997) *La Première gorgée de bière et autres plaisirs minuscules*, Paris: Gallimard.
Delisle, Jean (2005) *Enseignement pratique de la traduction*. Ottawa: Press université Ottawa.
Eisenberg, Michael B. and Berkowitz, Robert, E. (1990) *Information Problem-Solving: The Big Six Skills Approach to Library and Information Skills Instruction*. Norwood, NJ: Ablex.
Enríquez, Raído, Vanessa (2014) *Translation and web search*, Routledge: Newyork.
Gile, Daniel (2005) *La traduction, la comprendre, l'apprendre*. Paris: PUF.
Kelly, Dorothy A. (2005) *A Handbook for Translator Trainers: A Guide to Reflective Practice*. Manchester: St. Jerome.

- Kiraly, Donald C. (1995) *Pathways to Translation: Pedagogy and Process*.
Kent, OH: Kent State University Press.
- Jääskeläinen, Riitta (1999) *Tapping the Process. An Explorative Study of the
Cognitive and Affective Factors Involved*, Joensuu: Translating. University
of Joensuu Press.
- Perrin, Isabelle (1996) *L anglais : Comment traduire ?*, Paris: Hachette.
- Roesch, Roselyne and Rolle-Harold, Rosalba(2016), *La France au quotidien*,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Grenoble.

2) 편저서 및 발표집

- 정보통신부 (1999) 「국민 정보리터러시 측정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연구개발결과보고서』.
- Atkins, B. T. S., and Varantola, Krista (1998) ‘Monitoring Dictionary Use.’,
Atkins B.T.S.(dir.), *Using Dictionaries: Studies of Dictionary Use by
Language Learners and Translators*, Tübingen: Max Niemeyer, 83-22.
- Fox, Olivia (2000) ‘The use of translation diaries in a process-oriented translation
teaching methodology’, Schäffner. C. & Adab, B.(eds), *Developing
translation competence*, Birmingham: Aston university, 115-130.
- PACTE (2003) ‘Building a Translation Competence Model’, F. Alves (ed.),
Triangulating Translation: Perspectives in process oriented research,
Amsterdam: John Benjamins, 43-66.
- Scott-Tennent, Christopher, González Davies, Maria and F. Rodríguez Torras,
Fernanda (2000) ‘Translation Strategies and Translation Solutions: Design
of a Teaching Prototype and Empirical Study of Its Results.’ A. Beeby,
E. Doris, and M. Presas, *Investigating Transl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107-116.
- Varantola, Krista (1998) ‘Translators and Their Use of Dictionaries: User Needs
and User Habits’, B. T. S. Atkins (dir.), *Using Dictionaries: Studies of
Dictionary Use by Language Learners and Translators*, Tübingen: Max
Niemeyer, 179-192.

(3) 논문

- 강명희, 김래연 (2000) 「웹 기반 학습에서 Big 6 정보 리터러시 모델의 활용방안」, 『교육정보방송연구』, 6(2): 5-25.
- 김선경, 권정만 (2008) 「지식 리터러시 개념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행정논집』, 20(3): 815-839.
- 김혜숙, 진성희 (2006) 「미국 ETS의 ICT 리터러시 평가 현황 및 시사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23.
- 서진완 (2001) 「‘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의 개념을 이용한 지역주민의 정보화수준 측정」, 『한국행정학보』, 34(1): 309-325.
- 이수상 (2009) 「우리나라 대학생의 정보 리터러시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1): 85-103.
- 조벽 (2000) 「미디어 리터러시를 주도할 한국」, 『미디어와 교육』, 5(1): 7-12.
- Enríquez, Raído, Vanessa (2011) ‘Investigating the Web Search Behaviors of Translation Students: An Exploratory and Multiple-Case Study.’ PhD dissertation, Barcelona: Universitat Ramon Llull.
- Göpferich, Sousanne and Jääskeläinen Riitta (2009) ‘Process Research into the Development of Translation Competence: Where Are We, and Where Do We Need to Go?’,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10 (2): 169-91.
- Künzli, Alexander (2001) ‘Experts versus novices : l’tilisation de sources d’information pendant le processus de traduction’, *Meta* 46(3): 507-523.
- Lee-Jahnke, Hannelore (2001) ‘Aspects pédagogiques de l’valuation en traduction’, *Meta*, 46(2): 258-271.
- Martínez Melis, N. (2001) ‘Évaluation et didactique de la traduction : le cas de la traduction dans la langue étrangère’, dissertation, Barcelona: Universitat Autònoma de Barcelona.
- Massey, Gary and Ehrensberger-Dow, Maureen (2010) ‘Investigating Demands on Language Professionals: Methodological Challenges in Exploring Translation Competence’. *Bulletin suisse de linguistique appliqué*, 1: 127-141.
- Orozco Jutorán, M. and Hurtado Albir, Amparo (2002) ‘Measuring Translation

- Competence Acquisition’, *Meta* 47 (3): 375-402.
- PACTE (2009) ‘Results of the validation of the PACTE Translation Competence model: Acceptability and Decision-making’, *Across Language and Cultures*, 10,(2), 207-230
- Pinto Molina, María and Salvador, Doria Sales (2007) ‘A Research Case Study for User-Centred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Information Behaviour of Translation Trainees’.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33(5): 531-550.
- _____ (2008a) ‘INFOLITRANS: A Model for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petence for Translators’, *Journal of Documentation*, 64 (3): 413-437.
- _____ (2008b) ‘Towards User-Centred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in Translation: The View of Trainers’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2(1): 47-74.
- Regarde, Laurent (2009) ‘Le traducteur professionnel face aux textes techniques et à la recherche documentaire’, PhD dissertation, Paris : University of Paris III.
- Roberts, Roda and Pergnier, Maurice (1987) ‘L’quivalence en traduction’, *Meta*, 32(4), 392-402.
- Scott-Tennent, Christopher, González Davies, Maria and F. Rodríguez Torras, Fernanda (2001) ‘Training in the Application of Translation Strategies for Undergraduate Scientific Translation Students.’ *Meta* 46(4): 737-744.
- Vienne, Jean (1998) ‘Avez-vous dit compétence traductionnelle?’, *Meta*, 43(2): 187-190.
- White, Marilyn Domas, Matteson, Miriam and Abels, Eileen G. (2008) ‘Beyond Dictionaries: Understanding Information Behavior of Professional Translators’, *Journal of documentation*, 64(4): 576-601.

(4) 인터넷 자료

- Désilets, Alain, C. Barrière, Caroline and Quirion, J. (2007) ‘Making Wikimedia Resources more Useful for Translators’, Available at http://iitatlns2.iit.nrc.ca/publications/nrc-50383_e.html

Désilets, Alain (2007) 'Translation Wikified: How will Massive Online Collaboration Impact the World of Translation?', Available at http://alaindesilets.org/MyPublicSite/tikidownload_file.php?fileId=18

_____ (2010) 'Translation and Crowd Sourcing: Opportunity or Heresy?' Available at <http://www.slideshare.net/alaindesilets/2010-06umarylandcrowd-sourcingworkshopv2010061610h44>

LCFF(2013), 'Le système de la santé en France' in LCFF, Available at <http://www.lcf-magazine.com/le-systeme-de-sante-en-france/>

Périnel, Quentin (2016) 'Sans smartphone, notre productivité augmente de 26%' in Figaro, Available at <http://www.lefigaro.fr/vie-bureau/2016/11/18/09008-20161118ARTFIG00070-sans-smartphone-notre-productivite-augmente-de-26.php>

[Abstract]

A study about information literacy of undergraduate translation learners

Kim, Daeyoung
(Korea University)

Information literacy, the ability to ‘read and write information’ is becoming an essential skill in the 21st century and in living the near future which is characterized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study focuses on information literacy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translation class by applying ‘Big 6 Information Literacy Model’ by Eisenberg and Berkowitz(1990) which was used as an in-class material to write translation process report. The study outcomes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in translation of ‘socio-cultural text’ and ‘information text’ such as newspaper article, whilst learners most frequently used a common dictionary but they also proactively used encyclopedia, dual language dictionary, single language dictionary, ‘context’ dictionary (www.linguee.fr), Internet, other newspaper article (as parallel text) as reference materials.

Second, one can infer a high usage of other newspaper article (as parallel text). In addition, other research methods were used such as blog run by native speakers, www.linguee.fr, and image search.

Third, for texts such as literal essays, learners faced much difficulty in understanding metaphors and connotations. They also faced difficulty in understanding socio-cultural knowledge and related expressions. Given that such information cannot be searched, students often relied on dictionary.

Based on these outcomes, one can conclude that Korean translation learners are information literate and that their literacy can be enhanced further by introducing information literacy methodology in class. In addition, ‘Big 6

Information Literacy Model' based translation process report can be an effective learning tool that can be used to promote information literacy.

▶ Key Words: information literacy, 'Big 6 Information Literacy Model', translation process report, translation education, documentary research methods

김대영

고려대학교

daeyoung114@gmail.com

관심분야: 번역 교육, 번역 평가, 영상 번역

논문투고일: 2017년 4월 28일

심사완료일: 2017년 6월 5일

게재확정일: 2017년 6월 12일